2017학년도 경찰대학 1차시험 (국 어)

※ 총 12쪽 45문항(2점 35문항, 3점 10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 다음 중 어법에 맞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① 우리 선수가 드디어 종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② 나는 너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친구가 되고 싶다.
③ 이번 사건으로 우리는 큰 정신적 충격과 물질적 피해를 보았다.
④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다가올 미래의 위험을 미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⑤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반드시 의논을 하는 것이 좋다.

2.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다리를 ㉠다쳐서 걷지도 못하고 ㉡기어 다니던 강아지가 주인의 보살핌을 받은 후 통통하게 살이 ㉢쪄 꽤 보기 좋은 모습이 되었다. 다친 발이 아직은 완전히 회복이 안 ㉣되어 밖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머지않아 산책을 나가 바람을 ㉤쐬어도 될 것 같다.

① ㉠ : 용언의 활용형에 '쳐'가 나타나므로 [다처서]로 발음한다.
② ㉡ : [기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③ ㉢ : '찌어'가 한 음절로 축약되어 '쪄'가 되었기 때문에 [쩌 :]와 같이 긴소리로 발음한다.
④ ㉣ : 한 음절로 축약되면 '돼'로 쓰고 [돼 :]와 같이 긴소리로 발음한다.
⑤ ㉤ : 두 음절로 축약되면 '쐐도'로 쓰고 [쐐 : 도]와 같이 긴 소리로 발음한다.

3. <보기>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부엌, 밖'은 각각 [부억], [박]으로 발음된다.
ㄴ. '낫, 낮, 낯, 낱'은 모두 [난]으로 발음된다.
ㄷ. '먹는, 입는, 듣는'은 각각 [멍는], [임는], [든는]으로 발음된다.
ㄹ. '신라, 설날'은 각각 [실라], [설랄]로 발음된다.
ㅁ. '몫, 값'은 각각 [목], [갑]으로 발음된다.

① ㄱ, ㄴ, ㅁ은 음절의 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② ㄴ은 원래의 자음과 같은 조음 위치의 예삿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③ ㄷ은 조음 방법은 바뀌되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는 현상이다.
④ ㄷ, ㄹ은 인접한 소리에 의해 닮아 가는 현상이다.
⑤ ㅁ은 음절의 끝에서는 하나의 자음만 발음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오늘은 왠지 풍경화가 ㉠생각만큼 잘 안 그려진다. 멋지게 그리고 싶어도 풍경화를 ㉡그리는데 꼭 필요한 구도가 안 떠오른다. 눈에 ㉢보이는대로 그린다고 멋진 풍경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리면 ㉣그릴수록 어려운 것이 풍경화라고 하셨나 보다. 그래도 멋지게 그려 내고 싶은 나의 마음을 ㉤모르시는지 선생님께서는 빨리 내라고 재촉하신다.

① ㉠ : '생각한 만큼'이 줄어든 것이므로 '생각 만큼'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② ㉡ : '데'가 관형어 '그리는'의 수식을 받으므로 '그리는 데'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③ ㉢ : '대로'가 조사이므로 현재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
④ ㉣ : '수록'이 의존 명사이므로 '그릴 수록'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⑤ ㉤ : '지'가 의존 명사이므로 '모르시는 지'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5. <보기>의 맞춤법 규정과 그 용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글 맞춤법 규정】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ㄱ. 값지다, 넋두리
ㄴ. 넓적하다
ㄷ. 옆댕이, 잎사귀, 덮개
ㄹ. 굵다랗다

다만,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a. 널따랗다, 널찍하다
b. 얄따랗다, 짤따랗다

① ㄱ, ㄴ, ㄹ은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 나타나는 음운의 변동과 관련이 있다.
② ㄴ, ㄹ과 a, b에서 어간의 겹받침은 모두 발음되기도 하고 일부만 발음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③ ㄴ과 a에서 겹받침의 발음에 따라 어간의 표기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④ ㄷ에서 음절의 끝소리규칙이 적용되더라도 원형을 밝히어 적음을 알 수 있다.
⑤ ㄹ과 b에서 어간의 표기에 따라 접미사의 표기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6.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기>

걷어 올린 외투 깃 속에 방한모 쓴 대가리를 푹 파묻고 좌우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양이 푸근한 눈치다.

"㉠<u>여보게</u>, 그 외투 벗어서 **ⓐ이 양반** ㉡<u>드리게</u>."

"㉢<u>왜요</u>?" 하고 **ⓑ아범**은 놀란다.

"왜든 벗어 ㉣<u>드려</u>! 이 어른 거야." 하고 **ⓒ사랑사람**은 두 사람을 다 조롱하듯이 웃는다.

"아니, ㉤<u>영감께서</u> 저더러 입으라고 ㉥<u>내주셨는뎁쇼</u>?"

그래도 아범은 벗기가 아까운 모양이다.

"아따, 잔소리 퍽두 하네. 자네 팔자에 외투가 당한가! 하루쯤 입어 봤으면 그만이지." 하고 껄껄 웃는다.

- 염상섭, 「삼대」

① ㉠의 호칭과 ㉡의 어미는 경어법상 잘 어울린다.
② ㉡으로 보아 ⓒ는 ⓐ와 ⓑ를 동등한 정도로 높이고 있다.
③ ㉡과 ㉣을 비교해 볼 때 ⓑ에 대해 쓴 ⓒ의 경어법에 변화가 나타난다.
④ ㉤의 '-께서'와 ㉥의 '-시-'는 경어법상 잘 어울린다.
⑤ ㉢과 ㉥을 비교해 볼 때 ⓒ에 대해 쓴 ⓑ의 경어법에 변화가 나타난다.

7. <보기>의 '다의어'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보기>

낱말의 형태가 같더라도 그 의미에 따라 <u>다의어</u>와 동음이의어를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하나의 낱말이 여러 의미를 가진 경우로 의미 간의 연관성이 있는 데 반해, 후자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낱말이 우연히 소리만 같은 경우로 의미 간의 연관성이 없다.

① 버스에 <u>타는</u> 시간이 길어 늘 피곤하다.
매스컴을 자주 <u>타는</u> 집이 꼭 맛있는 집은 아니다.
② 명인이 가야금을 직접 <u>타니</u> 멋진 소리가 난다.
왼쪽으로 가르마를 <u>타니</u>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③ 흥부가 이 박을 <u>타고</u> 나면 부자가 될 것이다.
그는 무슨 복을 <u>타고</u> 났는지 사업마다 실패를 모른다.
④ 소년상의 코는 손을 많이 <u>타서</u> 반들반들해졌다.
이 천은 먼지가 쉽게 <u>타서</u> 옷감으로는 부적합하다.
⑤ 콩을 맷돌에 <u>타서</u> 만든 콩국수라서 맛이 일품이다.
소화가 안 될 때 매실 진액을 물에 <u>타서</u> 마시면 좋다.

8. <보기>에 쓰인 '-겠-'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보기>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내 힘으로 반드시 이겨 내<u>겠</u>다.

① 동생은 혼자 정상에 오르<u>겠</u>다고 떼를 쓴다.
② 오래 살다 보니 별 이상한 일을 다 보<u>겠</u>다.
③ 밤이 늦었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u>겠</u>어요?
④ 이 정도 문제는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풀<u>겠</u>다.
⑤ 지금쯤 내가 살던 고향에서는 벌써 추수를 끝냈<u>겠</u>다.

9.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옥련의 얼굴은 옥을 깎아서 ㉠<u>연지분으로</u> 단장한 것 같다. ㉡<u>옥련의</u> 부모가 옥련의 이름을 지을 때에 옥련의 ㉢<u>모양과</u> ㉣<u>같이</u> ㉤<u>아름다운</u> 이름을 짓고자 하여 ㉥<u>내외</u> 공론이 무수하였더라.

- 이인직, 「혈의 누」

① ㉠은 용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② ㉡, ㉢은 모두 체언에 조사가 결합된 것이다.
③ ㉡, ㉤은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④ ㉣은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된 것이다.
⑤ ㉥은 생략된 조사에 따라 관형어도 될 수 있고 부사어도 될 수 있다.

10. 다음 글을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880년 프랑스 신부들이 펴낸 <한불자전>을 보면 한글이 얼마나 훌륭한 글자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u><한불자전>은 한글 표제어 다음에 알파벳 발음이다.</u> 사전 편찬자들은 조선어를 배우려는 프랑스인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이 사전의 표제어를 프랑스어 알파벳이 아니라 생소한 한글로 적은 데 불만을 품은 사용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한글 자모는 워낙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글자라서 유럽인 입장에서도 ㉡<u>같은 소리글자인 히브리어, 그리스어, 아랍어, 러시아어</u>보다 훨씬 쉽게 읽힐 수 있다고 말한다. ㉢<u>또 일본에서는 '가나'가 철저하게 한자의 보조적 지위에 있지만 조선에서는 한자가 우대받기는 하지만 민간에서는 한자보다 한글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한다.</u> 한글만 익히면 책을 술술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글이 다양한 음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소리글자여서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다는 사실을 프랑스 신부들도 일찌감치 알고 있었음을 ㉣<u>방증</u>한다. ㉤<u>조선에서 기독교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무서운 속도로 퍼진 것은 한글 덕분이라는 설이 있다.</u>

① ㉠은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므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되도록 고쳐 써야 한다.
② ㉡에서 '글자'와 '히브리어, 그리스어……'가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문자의 이름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
③ ㉢은 한 문장 안에 '-지만'이 두 번 쓰여 어색하므로 '하지만'을 '해도'로 고쳐 써야 한다.
④ ㉣은 맥락에 맞게 '반증'으로 대체해야 한다.
⑤ ㉤은 단락의 주제와 관련이 적어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해야 한다.

11. 문장의 중의성이 상황에 맞게 해소되지 <u>않은</u> 것은? [3점]

① 수정 전: 나는 울며 떠나는 그녀에게 인사했다.
상황: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슬프다.
수정 후: 나는 떠나는 그녀에게 울며 인사했다.

② 수정 전: 네가 나보다 그녀를 더 좋아한다는 것이 싫다.
상황: 나는 그 누구보다도 그녀를 좋아한다고 믿는다.
수정 후: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 것보다 네가 그녀를 더 좋아한다는 것이 싫다.

③ 수정 전: 신병들은 지금 새로 받은 군복을 입고 있다.
상황: 신병들은 빨리 새 군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수정 후: 신병들은 지금 새로 받은 군복을 입는 중이다.

④ 수정 전: 새로운 친구의 집은 우리 집에서 매우 가깝다.
상황: 친구가 새 집으로 이사했다.
수정 후: 친구의 새로운 집은 우리 집에서 매우 가깝다.

⑤ 수정 전: 선생님은 모든 학생과 인사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
상황: 선생님이 작별 인사를 하는 날 못 온 학생이 있다.
수정 후: 선생님은 학생과 모두 인사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

12. <보기>는 '세대 간 갈등의 해결 방안'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와 각 부분의 소제목이다.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Ⅰ. 서론
- 세대 간 갈등의 사례

Ⅱ. 세대 간 갈등의 실태
- 신세대의 불만 : **나는 늙어도 저러지 않을 거야**
- 구세대의 불만 : ㉠_____
- ㉡_____ : _____

Ⅲ. 세대 간 갈등의 원인
- 이해의 부족 : **눈 못 뜬 올챙이**
- ㉢<u>연결 고리의 부재</u> : **게으른 통신 비둘기**
- ㉣<u>배려의 부족</u> : **과거를 잊은 개구리**

Ⅳ. 세대 간 갈등의 해결책
- 신세대의 태도 : **우러러보기**
- 구세대의 태도 : **눈높이 맞추기**
- 중간세대의 역할 : ㉤_____

Ⅴ. 결론 : 세대에 따른 올바른 태도와 역할의 강조

① Ⅰ이 서론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문제 제기 내용을 추가한다.
② 다른 부분의 소제목을 감안하여 ㉠에 '저 나이 때 나는 안 그랬는데'라는 소제목을 쓴다.
③ Ⅱ가 다른 부분과 균형이 맞도록 ㉡에 '중간세대'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④ Ⅲ이 다른 부분과 대응하도록 ㉢과 ㉣의 순서를 맞바꾼다.
⑤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감안해 ㉤에 '눈치 보기와 비위 맞추기'라는 소제목을 쓴다.

13. '올림픽 선수단을 위한 응원문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 문장을 만들어 보았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공모의 취지에 맞도록 문장을 작성할 것.
- 모두의 참여와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
- 연쇄적 표현을 사용할 것.
- 대구적 표현을 사용할 것.

① 선수는 열띤 경기장에서, 당신은 뜨거운 응원의 장에서 함께할 때 우리는 올림픽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선수의 뜨거운 땀은 메달로 돌아오고, 메달로써 땀 흘린 노력이 보상 받을 때 우리의 자부심도 더 커집니다.
③ 뜨거운 응원이 메달의 등급을 높이고, 높아진 등급이 응원의 열기를 돋울 때 우리 모두의 올림픽이 됩니다.
④ 스마트폰 속의 나만의 올림픽, TV 앞의 가족만의 올림픽은 이제 그만. 만나자! 응원의 광장에서.
⑤ 나, 너, 우리, 나라, 세계! 모두가 참여하여 만든 올림픽의 오륜은 지구촌을 하나로 만듭니다.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포유동물의 신체가 그러하듯이 포유동물의 뇌도 공통적인 보편 설계를 따른다. 인간과 유인원은 물론 포유강 전체에 걸쳐 동일한 세포 형태, 화학 물질, 세포 조직, 하부 기관, 간이역, 경로들이 많이 발견된다. 그런데 이들 간의 뚜렷하고 큰 차이는 부분들의 ㉠<u>팽창</u>이나 ㉡<u>축소</u>에서 발견된다. 영장류는 시각 영역, 시각 영역들의 상호 연결, 시각 영역과 전두엽의 운동 영역 및 결정 영역과의 접속 등의 수에 있어 다른 포유동물과 차이를 보인다.

한 동물이 특출한 재능을 갖고 있으면 뇌 전체의 구조에 반영되는데 때로는 육안으로 보일 정도다. 원숭이의 뇌에서 시각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절반 정도인데, 이는 깊이, 색, 운동 등에 민감한 습성을 반영한다. 음파탐지기에 의존하는 박쥐는 초음파 청력을 전담하는 특별한 뇌 영역을 갖고 있으며, 씨앗을 저장하는 사막생쥐는 먹이를 은닉하지 않는 가까운 친척들보다 인지적 지도가 있는 부위를 더 크게 갖고 태어난다.

인간의 뇌도 진화 이야기를 갖고 있다.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영장류의 뇌가 크게 개량되어 결국 인간의 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신체 크기를 기준으로 볼 때 일반적인 원숭이나 유인원보다 약 세 배가량 크다. 인간의 뇌는 태아기의 뇌 성장이 출생 후 1년 동안 연장됨으로써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만일 그 시기에 우리의 몸이 뇌와 나란히 성장한다면 우리는 키 3미터에 몸무게 0.5톤이 될 것이다.

뇌의 주요한 부위들도 저마다 개량을 거쳤다. 후각을 담당하는 부위는 영장류 평균 크기의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시각과 운동을 위한 주요 피질 부위들도 그 정도 비율로 축소되었다. 시각 기관에서 최초의 정보 정류장인 1차 시각 피질은 뇌 전체에서 더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반면 복잡한 형식을 처리하는 이후의 영역들은 시각 정보를 언어와 개념 영역들로 돌리는 영역들처럼 크기가 확대되었다. 청각을 위한 영역들, 특히 말을 이해하는 영역들도 크기가 확대되었고, 신중한 사고와 계획 수립의 영역이 있는 전전두엽은 영장류 조상보다 두 배나 확대되었다.

영장류의 뇌 영역들이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되는 일도 발생했다.

인간과 원숭이의 뇌를 관찰해 보면 인간의 뇌에서 말에 관여하는 브로카 영역과 진화상 대응하는 상동기관이 원숭이의 뇌에도 있다. 그러나 원숭이의 이 부위는 말에는 분명히 사용되지 않으며, 심지어 날카로운 비명이나 고함, 그 밖의 부르는 소리들을 내는 데에도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원숭이와 유인원의 뇌는 좌우가 약간 비대칭인 데 반해 인간의 뇌는 특히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들에서 균형이 크게 기울어 두 반구가 형태만으로 구별이 가능해졌다.

이런 차이들도 흥미롭긴 하지만 인간의 뇌는 외관상 완벽한 축소판으로 보이는 유인원의 뇌와 뉴런들의 연결 패턴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 마이크로칩, 책, 비디오테이프에서 서로 간의 차이가 전체적인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분들의 조합과 배열에 있는 것과 같다.

인간의 뇌에서 기능하는 미세 회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전무하다. 죽기 전에 자신의 뇌를 과학 연구에 바치겠다는 자원자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방법으로든 인간과 유인원의 성장하는 신경 회로를 보면서 그 유전 암호를 읽을 수 있다면 틀림없이 상당한 차이가 발견될 것이다.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① 인간의 뇌는 축소하면 유인원의 뇌와 형태와 기능 면에서 유사하다.
② 출생 후에 인간의 뇌는 신체의 다른 부분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한다.
③ 포유동물 사이에 나타나는 뇌의 가장 큰 차이는 각 부위의 비율의 차이이다.
④ 포유동물은 신체 전반적인 특징은 물론 뇌의 구조도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다.
⑤ 인간의 뇌는 정보의 수집을 위한 부위보다 정보의 처리를 위한 부위가 더 발달하였다.

15. 윗글에 쓰인 서술 방식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과정을 통해 변화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② 예시를 통해 핵심적 진술을 뒷받침하였다.
③ 대조를 통해 대상 간의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④ 비교를 통해 동일 부류의 공통점을 제시하였다.
⑤ 유추를 통해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하게 하였다.

16. <보기>에서 ㉠, ㉡에 해당하는 사례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ㄱ. 원숭이 - 시각 영역
ㄴ. 사막생쥐 - 인지적 지도가 있는 부위
ㄷ. 인간 - 후각 영역
ㄹ. 인간 - 청각 영역
ㅁ. 인간 - 전전두엽

	㉠	㉡
①	ㄱ, ㄴ, ㄷ, ㅁ	ㄹ
②	ㄱ, ㄴ, ㄹ, ㅁ	ㄷ
③	ㄱ, ㄷ, ㄹ, ㅁ	ㄴ
④	ㄱ, ㄷ, ㄹ	ㄴ, ㅁ
⑤	ㄴ, ㄹ, ㅁ	ㄱ, ㄷ

[17~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듕(山中)을 믜양 보랴 동히(東海)로 가쟈ᄉᆞ라
남여완보(籃輿緩步)ᄒᆞ야 산영누(山映樓)의 올나ᄒᆞ니
녕농(玲瓏) 벽계(碧溪)와 수셩(數聲) 뎨됴(啼鳥)ᄂᆞᆫ 니별(離別)을 원(怨)ᄒᆞᄂᆞᆫ ᄃᆞᆺ
졍긔(旌旗)를 썰티니 오식(五色)이 넘노ᄂᆞᆫ ᄃᆞᆺ
고각(鼓角)을 섯부니 히운(海雲)이 다 것ᄂᆞᆫ ᄃᆞᆺ
[A] ┌ 명사(鳴沙)길 니근 ᄆᆞᆯ이 취션(醉仙)을 빗기 시러
[A] └ 바다흘 겻틱 두고 히당화(海棠花)로 드러가니
[A] ┌ 빅구(白鷗)야 ᄂᆞ디 마라 네 버딘 줄 엇디 아ᄂᆞᆫ
[A] └ 금난굴(金幱窟) 도라드러 ㉠총셕뎡(叢石亭) 올라ᄒᆞ니
빅옥누(白玉樓) 남은 기동 다만 네히 셔 잇고야
공슈(工倕)의 셩녕인가 ㉡귀부(鬼斧)로 다ᄃᆞᆫ문가
구ᄐᆞ야 뉵면(六面)은 므어슬 샹(象)톳던고
고셩(高城)을란 뎌만 두고 삼일포(三日浦)롤 ᄎᆞ자가니
㉢단셔(丹書)ᄂᆞᆫ 완연(宛然)ᄒᆞ되 ᄉᆞ션(四仙)은 어ᄃᆡ 가니
예 사흘 머믄 후(後)의 어ᄃᆡ 가 ᄯᅩ 머믈고
션유담(仙遊潭) 영낭호(永郎湖) 거긔나 가 잇ᄂᆞᆫ가
쳥간뎡(淸澗亭) 만경ᄃᆡ(萬景臺) 뎟 고ᄃᆡ 안돗던고
니화(梨花)ᄂᆞᆫ 불셔 디고 졉동새 슬피 울 제
낙산(洛山) 동반(東畔)으로 의샹ᄃᆡ(義相臺)예 올라 안자
일츌(日出)을 보리라 밤듕만 니러ᄒᆞ니
샹운(祥雲)이 집픠ᄂᆞᆫ 동 ㉣뉵뇽(六龍)이 바퇴ᄂᆞᆫ 동
바다히 ᄠᅥ날 제ᄂᆞᆫ 만국(萬國)이 일위더니
텬듕(天中)의 티ᄯᅳ니 호발(毫髮)을 헤리로다
아마도 녈구름 근쳐의 머믈셰라
㉤시션(詩仙)은 어ᄃᆡ 가고 히타(咳唾)만 나맛ᄂᆞ니
텬디간(天地間) 장(壯)ᄒᆞᆫ 긔별 ᄌᆞ셔히도 홀셔이고

- 정철, 「관동별곡」

(나)

강원도는 함경도와 경상도 사이에 있다. 서북쪽으로 황해도 곡산, 토산 등 고을과 이웃하였고 서남쪽으로는 경기도, 충청도와 서로 맞닿았다. 철령(鐵嶺)에서 남쪽으로 태백산까지는 영(嶺) 등성이가 가로 뻗쳐서 하늘과 구름에 닿은 듯하며 영 동쪽에는 아홉 고을이 있다. 북쪽으로 함경도 안변과 경계가 닿은 흡곡, 통천, 고성, 간성, 양양, 옛 예맥의 도읍이었던 강릉, 삼척, 울진, 남쪽으로 경상도 영해부와 경계가 맞닿은 평해이다. 이 아홉 고을이 모두 동해 가에 있어 남북으로는 거리가 거의 천 리나 되지만 동서는 함경도와 같이 백 리도 못 된다. 서북쪽은 영 등성이에 막혔고 동남쪽은 멀리 바다와 통한다. 높고 큰 산 밑이어서 지세는 비록 비좁으나 산야(山野)가 나지막하고 평평하여 명랑 수려하다.

동해는 조수(潮水)가 없는 까닭에 물이 탁하지 않아서 벽해(碧海)라 부른다. 항구와 섬 따위가 앞을 가리는 것이 없어 큰 못가에 임한 듯 넓고 아득한 기상이 자못 굉장하다. 또 이 지역에는 이름난 호수와 기이한 바위가 많다. 높은 데 오르면 푸른 바다가 망망하고 골짜기에 들어가면 물과 돌이 아늑하여 경치가 나라 안에서 실상 제일이다. 누대(樓臺)와 정자(亭子) 등 훌륭한 경치가 많아, 흡곡 시중대, 통천 총석정, 고성 삼일포, 간성 청간정, 양양 청초호, 강릉 경포대, 삼척 죽서루, 울진 망양정을 사람들이 관동 팔경이라

부른다. 아홉 고을의 서쪽에는 금강산, 설악산, 두타산, 태백산 등 산이 있는데 산과 바다 사이에 기이하고 훌륭한 경치가 많다. 골짜기가 그윽하고 깊숙하며 물과 돌이 맑고 조촐하다. 간혹 ⓐ선인(仙人)의 이상한 유적이 전해 온다.

이 지방 사람은 놀이하는 것을 좋아한다. 노인들이 기악(妓樂)과 술, 고기를 싣고 호수와 산 사이에서 흥겹게 놀며 이것을 큰일로 여긴다. 그러므로 그들의 자제(子弟)도 놀이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 문학에 힘쓰는 자가 적다.

- 이중환, 「택리지」

17.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모두 관동 지방의 풍물과 관습에 대해 말하고 있다.
② (가)와 (나)는 모두 관동 지방을 여행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작가의 체험을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열거한 대상의 일부를 부각하여 설명하고 있다.
⑤ (나)는 (가)에 비해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18. (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치를 감상하며 유유자적하게 유람하고 있다.
② 옛 자취를 찾아 과거의 인물을 회상하고 있다.
③ 일출 광경을 보며 옛 시인의 말을 떠올리고 있다.
④ 신선 사상을 바탕으로 인물과 사물을 그리고 있다.
⑤ 웅장한 자연 속에서 인간의 왜소함을 인식하고 있다.

19. (나)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상에 대해 지리적 위치, 소속 고을, 자연 경치, 민풍 순으로 서술하였다.
② 대상을 사회 제도, 역사, 문화적 배경과의 관련 속에서 서술하였다.
③ 대상에 속한 사물과 인물을 상호 대비적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④ 대상의 과거, 현재, 미래의 변화상을 순차적으로 서술하였다.
⑤ 대상의 주요한 속성을 분류와 구분의 방법으로 서술하였다.

20. [A]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환해(宦海)*에 놀란 물결 임천(林泉)에 밋츨쏜가
갑 업슨 강산(江山)에 말 업시 누엇시니
백구(白鷗)도 닉 뜻을 아는지 오락가락 ᄒᆞ드라

- 이정보

* 환해(宦海) : 관리의 사회

① [A]와 <보기>는 모두 자연 친화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② [A]와 <보기>는 모두 눈에 띄는 대상에 감정 이입을 하고 있다.
③ [A]는 바닷가를, <보기>는 일반적인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④ [A]는 돈호법을, <보기>는 설의법을 사용하여 뜻을 강조하고 있다.
⑤ [A]에는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이, <보기>에는 임금에 대한 걱정이 나타나 있다.

21. (가)의 ㉠~㉤ 중 (나)의 ⓐ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출근 시 일반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산업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 문제는 사회 보장 수급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권적 기본권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사회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최소한의 수준을 넘는 사회 복지와 사회 보장은 이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 능력, 국민 소득과 생활수준, 전체적인 사회 보장 수준과 제도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입법을 통해 해결할 사항이라고 보았다. 우리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존 보장을 요구할 권리일 뿐 그 이상의 구체적 권리를 직접 도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참조한 것이다. 그에 따라 다수 의견은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 문제를 포함한 산재 보험 수급권 역시 그 필요성에 앞서 국가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재원 확보 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은 통상적인 출퇴근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다수 의견은 보충 의견을 통해,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에 대한 재해 보상이 법적으로 다른 것은 재정적 부담 규모의 현격한 차이, 보험 주체의 차이와 기여금의 불입 등을 고려한 입법 정책의 차이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은 이 문제는 입법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업무상 재해란 '어떤 사람이 근로자라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재해'라는 근본적인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출퇴근 재해에 대한 외국의 입법 사례와 함께 그것을 산재에 포함하도록 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을 상기시키며 경제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이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뒤처져 있는 데는 법률의 취지를 곡해해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판단해 온 대법원의 기존 해석도 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특이하게도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 모두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가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기대한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다. 다수 의견은 사회권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입법 재량에 의해 그 보호 범위가 정해지므로 출퇴근 재해를 보상 범위에 포함할 때 소요될 막대한 재정과 이해관계 조정 등의 문제를 국회와 행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고, 반대 의견은 이 사건은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므로 입법 재량에 맡겨 둘 영역이 아니지만 다수 의견을 형성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국회와 행정부의 긍정적인 조치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당시 노동부는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에 따르는 보험료 분담에 대해 손해 보험 단체와 협정이 이루어지면 2007년도 이후에는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 판결이 나온 후 ⓐ국회와 행정부는 대법원의 기대와 달리 출퇴근 재해에 대해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는 데 머물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수 의견의 판결문을 인용해 법률을 개정했다. 당시 산재보험법에 출퇴근 재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던 것을 제37조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불러일으킨 가장 큰 문제는 국회에서 개정 논의 중인 법률에 대한 해석을 전원 합의로 선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회의 법 개정 방향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 모두 국회의 진전된 논의를 기대한다는 뜻을 표명한 점은 같았지만, 다수 의견은 그 입법에 혼란을 초래할까 보아 종래의 해석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에 반해, 반대 의견은 입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결국 국회는 종래의 해석을 답습한 다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좀 더 진전된 해석을 간단히 폐기하고 말았다. 입법 재량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해석을 꺼린 다수 의견이 결국 입법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이런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원래 사법 자제는 사법 소극주의와 연결되지만 이 경우는 사법 자제에 의한 사법 적극주의의 실현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출근 시 근로자 사망 사건에서 다수 의견이 취한 태도는 사법 자제를 내세운 것이어서 언뜻 사법 소극주의적 태도를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적극적 태도를 취했을 때보다 더 적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사법부의 판결은 이처럼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책임감을 더 무겁게 갖고 성찰해야 할 것이다.

22. 윗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법권을 기반으로 한 입법권과 행정권 사이의 갈등과 조정
② 대법원의 판례 적용을 둘러싼 찬반 의견의 대립과 해소 방향
③ 판례를 통한 사법적 적극주의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④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판결의 내용과 그것이 입법에 끼친 영향
⑤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복지 국가의 당위성

23. <보기>에서 ㉠과 ㉡ 간의 쟁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기>

ㄱ. 사안과 연관된 국가의 경제적 수준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문제
ㄴ.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의 산재 인정 범위를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문제
ㄷ. 출퇴근 사고를 근로자의 처지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재해라고 판단하는 문제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4. ⓐ의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법원의 판결에 담긴 기대의 뜻을 수용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②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이제껏 애매했던 산재 범위를 분명히 정함으로써 분쟁을 막고자 하였다.
③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입법 재량에 맡기고자 한 취지에 따라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④ 대법원의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서로 합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법을 개정하여 보완하고자 하였다.
⑤ 대법원의 반대 의견이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한 취지를 법조문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25～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사또 행장을 차리는데 모양 보소. 숱 사람을 속이려고 모자 없는 헌 파립(破笠)에 벌이줄 총총 매어 초사(草紗) 갓끈 달아 쓰고 당만 남은 헌 망건에 갖풀관자 ㉠노끈 당줄 달아 쓰고 의뭉하게 헌 도복에 무명실 띠를 흉중에 둘러매고 살만 남은 헌 부채에 ㉡솔방울 선추(扇錘) 달아 일광을 가리고 내려올 제,

(중략)

"저 농부 말 좀 물어 보면 좋겠구먼." "무슨 말?" "이 골 춘향이가 본관(本官)에 수청(守廳) 들어 뇌물을 많이 먹고 민정에 작폐한단 말이 옳은지?" 저 농부 열을 내어 "게가 어디 삽나?" "아무 데 살든지." "'아무 데 살든지.'라니. 게는 눈 콩알 귀 콩알이 없나? 지금 춘향이가 수청 아니 든다 하고 형장 맞고 갇혔으니 창가(娼家)에 그런 열녀 세상에 드문지라. 옥결 같은 춘향 몸에 자네 같은 동냥치가 누설(陋說)을 시키다간 빌어먹도 못하고 굶어 뒤어지리. 올라간 이 도령인지 삼 도령인지 그놈의 자식은 일거후(一去後) 무소식(無消息) 하니 인사(人事) 그러고는 벼슬은커녕 내 좇도 못 하제." "어, 그게 무슨 말인고?" "왜, 어찌 됩나?" "되기야 어찌 되련마는 남의 말로 구습(口習)을 너무 고약히 하는고." "자네가 철모르는 말을 하매 그렇제." 수작을 파하고 돌아서며 "㉮허허, 망신이로고. 자, 농부네들 일하오." "예."

(중략)

"그 안에 뉘 있나?" "뉘시오?" "내로세." "내라니 뉘신가?" 어사 들어가며 "이 서방일세." "이 서방이라니. 옳제, 이 풍헌 아들 이 서방인가?" "허허, 장모 망령이로세. 나를 몰라, 나를 몰라?" "자네가 뉘기여?" "사위는 백년지객(百年之客)이라 하였으니 어찌 나를 모르는가?" ⓐ춘향의 모(母) 반겨하여 "애고 애고, 이게 웬일인고. 어디 갔다 인제 와. 풍세(風勢) 대작(大作)터니 바람결에 풍겨 온가? 봉운기봉(峰雲奇峰)터니 구름 속에 싸여 온가? 춘향의 소식 듣고 살리려고 와 계신가? 어서 어서 들어가세."

손을 잡고 들어가서 촛불 앞에 앉혀 놓고 자세히 살펴보니 걸인 중에도 상걸인 되었구나. 춘향의 모 기가 막혀 "이게 웬일이요?" "양반이 그릇되매 형언할 수 없네. 그때 올라가서 벼슬길 끊어지고 탕진가산(蕩盡家産)하여 부친께서는 학장(學長)질 가시고 모친은 친가로 가시고 다 각기 갈리어서 나는 춘향에게 내려와서 돈천이나 얻어 갈까 하였더니, 와서 보니 양가(兩家) 이력 말이 아닐세." 춘향의 모 이 말 듣고 기가 막혀 "무정한 이 사람아, 일차 이별 후로 소식이 없었으니 그런 인사가 어디 있으며, 후기(後期)인지

바랐더니 이리 잘 되었소. 쏘아 논 살이 되고 엎질러진 물이 되어 수원수구(誰怨誰咎)를 할까마는 내 딸 춘향 어쩔남나."

- 작자 미상, 「춘향전」

(나)

관찰사는 평양감사 직을 마치고 대사헌이 되어 조정으로 복귀하였고, 생도 부모님을 따라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점점 자신이 자란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감히 말이나 얼굴엔 드러낼 수 없었다. 이럴 즈음, 감시과(監試科)를 본다는 방이 나붙었다. 아버지의 명대로 생은 친구 두셋과 함께 산사로 들어가 과업(科業)을 준비하게 되었다.

산사에 있던 어느 날 밤, 친구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때다. 생도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홀로 일어나 뜰 앞을 서성였다. 때는 한겨울이고 눈 내린 밤 달빛이 눈부시게 환한 데에다 깊은 산속의 고요한 밤이라 온갖 소리마저 잦아들었다. 생은 달을 바라보며 자란을 그리워하다가 구슬픈 마음이 절로 일었다. 얼굴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을 누를 수 없어 정신을 잃고 미쳐 버릴 것만 같았다. 그러나 밤은 아직 반이나 남아 있었다.

급기야 그는 서 있던 뜰에서 곧장 평양을 향해 길을 떠났다. ㉢털모자에 명주옷을 입고 가죽신을 신고서 걸어서 길을 떠난 것이다. 그러니 채 10여 리도 못 가서 발이 부어 더는 걸어갈 수가 없었다. 어느 촌가에 들어가 가죽신을 ㉣짚신으로 바꿔 신고, 쓰고 있던 털모자를 버리고 옆이 찢어져 다 해진 ㉤패랭이를 얻어 썼다. 여행길에 구걸도 하였으나 굶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여관에 기숙했지만 밤새도록 추위에 얼기 일쑤였다.

부귀한 집안의 자제로 기름진 밥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자란 터라 문밖으로는 몇 걸음도 나가 본 적이 없던 그였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천 리 길을 걸어서 가다 보니 비틀거리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기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어 옷은 찢어질 대로 찢어져 너덜너덜해지고 얼굴은 검고 수척해진 게 거의 귀신의 몰골이었다. 험한 고비를 넘기며 조금씩 걸어서 한 달 남짓 만에 비로소 평양 땅에 도착할 수 있었다.

곧장 자란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자란은 보이지 않고 ⓑ그 어미 혼자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어미는 생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생은 앞으로 다가가 직접 이야기를 하였다. "나는 전 사또의 아들이라네. 자네 딸을 잊지 못해 이렇게 천 리 길을 걸어서 왔다네. 딸은 어딜 갔길래 안 보이는가?" 어미는 그의 말을 듣고도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다. "우리 딸은 새로 오신 사또의 자제한테 사랑을 입어 밤낮없이 산정(山亭)에서 함께 머물고 있지 뭡니까. 그 도련님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잠시도 허락지 않아 우리 애가 집에 오지 못한 지도 이미 몇 달이 됩니다. 도련님께서 이렇게 먼 길을 오셨으나 만날 길이 막연하니 참 딱하게도 되었구려." 그러면서 먼 곳만 바라볼 뿐 영접할 의사가 없었다.

- 임방, 「천예록」

2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간적 배경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② 시간의 순차적 진행에 따라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
③ 재치 있는 표현 속에서 해학적 분위기가 느껴진다.
④ 남녀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⑤ 서술자가 주인공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26. (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문장이 리듬감 있게 구성되어 있다.
② 인물의 외양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다.
③ 인물의 말 속에 비속어가 사용되고 있다.
④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⑤ 극적인 반전을 통해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다.

2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농부의 말이 모두 사리에 맞으므로 반박할 수 없어 애태우고 있다.
② 농부에게서 춘향의 상황을 듣고 지레 본관 사또의 위세에 눌리고 있다.
③ 암행어사인 자신이 하찮은 신분의 농부에게 멸시를 당했다고 분노하고 있다.
④ 춘향에 대한 여론에 안도하는 한편 자신은 염치없게 되었음을 멋쩍어 하고 있다.
⑤ 춘향과의 관계를 들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짐짓 딴소리를 하여 상황을 모면하고 있다.

28.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와 ⓑ는 모두 상대방에 대한 태도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② ⓐ와 ⓑ는 모두 인물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③ ⓐ와 ⓑ는 모두 딸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대하고 있다.
④ ⓐ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낮고, ⓑ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높다.
⑤ ⓐ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고, ⓑ는 자신의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

29. 글의 문맥상 ㉠~㉤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 ② ㉡ ③ ㉢ ④ ㉣ ⑤ ㉤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더 좋은 세상에서'(In a Better World, 2012)는 폭력에 관한 영화이다. 이 영화는 폭력의 근원과 양상, 그리고 결과에 대한 보고서라고도 할 수 있다. 폭력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영화는 크게 두 세계를 소재로 삼는다. 하나는 엘리아스와 크리스티안이라는 아이들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엘리아스의 아버지인 안톤의 세계이다. 감독 수잔 비에르는 이 두 세계의 모습을 교차시키면서 폭력의 시작(과거)과 과정(현재)을 보여 준 다음, 두 세계가 결합하는 순간을 제시하여 폭력의 결과(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인하도록 만들었다.

먼저 아이들의 세계를 보자. 몸이 약하고 수줍은 엘리아스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지만 누구에게도 고통을 말하지 못한다. 엘리아스가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새로 전학 온 크리스티안이 보게 되는데 둘은 곧 친해지게 된다. 그러나 엘리아스를 향하던 폭력이 그에게까지 확대되자, 크리스티안은 정당방위라는 명목으로 강력하게 응징한다. 그는 폭력에 대한 응징만이 자신들에게 가해질 폭력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일단

크리스티안의 방식은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인다. 둘에게 가해지던 폭력이 멈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화는 이러한 승리가 과연 타당한지를 묻는다. 오히려 폭력에 대응하는 강력한 폭력이 더 큰 폭력을 부르는 원천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다음으로 안톤의 세계를 보자. 그는 폭력에 제대로 응수하는 것은 비폭력밖에 없다고 믿는다. 사실 엘리아스가 괴롭힘에 변변히 대처를 못한 것은 안톤의 비폭력적인 가정교육에도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안톤은 비폭력에 대한 소신에 ㉠회의를 가져오는 사건을 겪게 된다. 의사인 그는 아프리카에서 자선의료사업을 하는데, 어느 날 그의 의료 캠프로 다친 임신부가 실려온다. 지역 군벌의 우두머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고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폭력은 비폭력주의자인 안톤마저 당혹스럽게 만든다. 얼마 후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입은 또 다른 임신부가 실려 오지만 안톤에게는 딱히 대책이 없다. 그러던 중 내전이 일어나고 그 우두머리는 부상을 당해 안톤을 찾아온다. 선택의 기로에 선 안톤은 치료할 것인가 말 것인가 번민하지만, 결국 소신대로 우두머리를 치료한다. 그러나 치료가 끝나자 안톤은 우두머리를 분노한 군중들 속으로 쫓아낸다.

엘리아스의 학교가 폭력의 과거이고 안톤의 아프리카가 폭력의 현재라면, 영화 후반부에 제시되는 크리스티안의 폭력은 폭력의 미래가 될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안톤은 엘리아스와 크리스티안을 불러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엘리아스의 동생이 또래 아이와 사소한 시비가 붙게 되고, 이어 또래 아이의 아버지가 등장해 말리는 안톤을 모욕하면서 폭력을 휘두른다. 안톤은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려 했지만, 아이들은 안톤을 나약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한다. 크리스티안의 지휘 아래 아이들은 또래 아이 아버지의 차를 폭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만, 오히려 엘리아스가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다치게 된다. 이후 안톤은, 심한 자책 때문에 자살을 하려는 크리스티안을 저지하고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고 하면서 크리스티안을 포용한다.

이렇게 영화는 안톤의 생각이 올바름을 암시하면서 끝나지만 문제는 남는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엘리아스의 비참함, 아프리카의 군벌을 보면서 들었던 안톤의 무력감, 얻어맞는 안톤을 보는 아이들의 울분을 과연 현실에서 참아 낼 수 있을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여야 할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주어라'여야 할까. 아니, 그것보다도 폭력에 대해 사회는, 특히 사회의 제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제도로 폭력을 징치하는 것 역시 폭력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3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폭력의 시작과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②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결말을 제시하고 있다.
③ 사소한 시비가 더 큰 폭력을 불러오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④ 문제 상황에 대한 인물들의 상반된 대처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⑤ 폭력적 세계와 비폭력적 세계를 번갈아 가면서 보여 주고 있다.

31. ㉠의 내용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폭력적 사태로 인한 피해자를 방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대처일까?
② 폭력이 가져온 끔찍한 비극을 보면서도 응징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있을까?
③ 비폭력을 말한다고 해서 폭력을 당한 이들의 비참한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④ 비폭력을 내세우는 것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로 하여금 폭력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⑤ 폭력이 세상을 나쁘게 만든다고 해서 비폭력이 반드시 세상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32. 윗글을 읽고 토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① 수철 : 엘리아스는 따돌림으로 괴로움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해 비폭력의 중요성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해.
② 영수 : 크리스티안이 학생들에게 복수한 것은 당연한 면이 있어 보이지만, 그 때문에 그는 폭력에 대해 잘못 생각하게 된 것으로 보여.
③ 소영 :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은 폭력을 휘두른 자나 복수하는 자 모두에게 파멸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양해야 할 대처 방식이야.
④ 진구 : 이 영화는 폭력에 대해 개인 차원의 대처 방식만 말하기 때문에, 사회나 제도 차원에서 폭력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⑤ 미영 : 이 영화는 안톤이 크리스티안을 마지막에 포용하는 결말을 통해 비폭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 했다고 생각해.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애비는 종이었다. ㉠<u>밥</u>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파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 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어매는 달을 두고 ㉡<u>풋살구</u>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흙으로 바람벽 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까만 에미의 아들.
갑오년(甲午年)이라든가 ㉢<u>바다</u>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외할아버지의 숱 많은 머리털과
그 커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 할(八割)이 ⓐ<u>바람</u>이다.
㉣<u>세상</u>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罪人)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天痴)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으련다.

찬란히 틔어 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 위에 얹힌 시(詩)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
㉤<u>볕</u>이거나 그늘이거나 혓바닥 늘어뜨린
병든 수캐마냥 헐떡거리며 나는 왔다.

- 서정주, 「자화상」

(나)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詩)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다)

시(詩)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먼— 기적 소리 처마를 스쳐 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것의 베개 맡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항시 곤두박질해 온 생활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 문다.
쓸쓸한 것이 오장(五臟)을 씻어 내린다.
노신(魯迅)이여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上海) 호마로(胡馬路)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
여기 하나의 상심(傷心)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 김광균, 「노신」

33. (가)~(다)의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가)는 상징과 직유법으로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② (나)는 의문의 형식으로 자신의 고뇌를 토로하고 있다.
③ (다)는 돈호법과 의인법으로 시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는 단정적인 어조를, (나)는 차분한 어조를 쓰고 있다.
⑤ (나)와 (다)는 모두 대구적 표현을 통해 시인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34. (가)~(다)에 드러난 시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가)와 (나)는 현실에 대한 무력감이 있는 반면, (다)는 그렇지 않다.
② (가)와 (다)는 믿고 따를 대상이 제시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③ (가)와 (다)는 자신이 속한 현실을 초월하려 하나, (나)는 그렇지 않다.
④ (나)와 (다)는 시에 대한 의구심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지만, (가)는 그렇지 않다.
⑤ (가), (나), (다) 모두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35. <보기>를 참조하여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노신(루쉰)은 중국의 근대 문학을 이끈 작가로, 항일 투쟁에 나섰다가 일본에 쫓기는 삶을 살았다. 중일전쟁 직전인 1936년 상하이 조계지에서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

① 시적 화자는 노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있어.
② 절망 속에서도 굳센 결심으로 견뎌 내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
③ 노신의 '등불'은 시적 화자에게 굳건한 태도를 상기시켜 주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어.
④ 경제적 무능함에 대한 비난을 받던 화자는 결국은 노신을 본받아 생활고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어.
⑤ 시적 화자의 고난은 개인적 삶에서 나오지만, 노신의 경우는 사회에 대한 이상과 관련이 있어.

36. ⓐ의 함축적 의미를 '인물이 처한 환경'이라고 볼 때, 함축적 의미가 ⓐ와 가장 <u>이질적인</u>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37.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부정적인 현실이 절정에 달한 상태에서 슬픔과 외로움을 감내하고 있다.
② 불의와 맞서 온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최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③ 미래에도 희망이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④ 그동안 추구해 온 이상향이 실현되리라는 믿음으로 구원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다.
⑤ 어두운 시대에 적극적으로 맞서지는 못하지만 희망을 간직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치가 일종의 '실재(reality)'라는 생각은 다분히 플라톤적이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은 현상계의 감각적인 모든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생각에 떠오르는 것들, 대표적으로 가치에도 존재성을 부여하려고 했으며, 나아가 가치의 존재성을 위해 가치의 객관성을 입증하려 했다. 물론 그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현상계에 그러한 객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현상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 곧 관념이 실재하는 이데아의 세계를 구상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가치의 존재성은 플라톤적인 철학적 열망이 만들어 낸 거대한 신화이다. 이후 수많은 철학자들이 플라톤의 시도에 매료되었으며, 이로써 형이상학적 사유는 서양 철학사에서 지배적인 흐름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의 실재론적 철학은 20세기에 들어와 반박된다. 대표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은 "선하거나 악한 것은 근본적으로 나이며 실재 세계가 아니다."라는 말로 가치에 관한 실재론을 부정한다. 이와 같은 가치의 실재성에 대한 거부는 기본적으로 경험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경험주의자들은 사실과 가치를 엄격히 구분하는 데서 논의를 시작한다. 그동안의 도덕 이론이 '이다/아니다'와 같은 사실 명제에서 '해야 한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 명제로 바로 이행하는 오류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던 흄을 이어받아 경험주의자 특히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가치 문장이 사실 문장에서 직접 추론될 수 없다'는 논제로 정형화한다. 곧 사실에서 가치가 직접 검증되거나 추론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가치의 존재성을 부정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퍼트남은 논리실증주의가 흄의 주장을 극단화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논리실증주의는 가치에 대한 주장이 사실상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표출하는 '정서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던 반면, 퍼트남은 그렇게 된다면 가치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해지기에 '회의주의'를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그는 "가치와 규범을 벗어나서는 어떤 사실에 대한 판단도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의 가치 의존성'이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한편, 존 설은 "가치 명제를 보조 전제로 도입해야만 사실 명제에서 가치 명제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논리실증주의자들의 주장을 비판했다. 사실과 가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과 가치 사이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결론이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존 설은 가치 평가와 관련된 진술이나 도덕적 원리가 개입하지 않고서도 사실 명제에서 가치 명제가 나오는 ㉠한 사례를 논리실증주의의 반례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존 설보다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실 명제와 가치 명제가 명확히 구별된다는 기본 가정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가령 "내 방에 갈색 탁자가 하나 있다."라는 문장은 전형적으로 명확하게 사실 명제에 해당하겠지만, 문제는 상황에 따라 이 문장도 가치 명제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탁자가 두 개 필요하다면 이 문장은 매우 부정적인 가치 평가를 함축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실 명제와 가치 명제를 판단하는 것이 문장 자체로만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문장을 둘러싼 상황과 맥락, 나아가 그 문장의 사용자가 지닌 목적과 의도 등을 포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처음부터 부적절한 가정에 의존하고 있었던 논리실증주의나 그에 대한 비판론자들의 관점을 넘어 가치의 실재성을 ㉡새로운 관점으로 논할 필요가 있다.

3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① 플라톤은 가치가 실재함을 입증하기 위해 이데아의 세계를 구상했다.
② 비트겐슈타인은 실재 세계는 가치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사실과 가치의 절대적인 분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④ 퍼트남은 사실이란 가치와 규범에 의존하여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⑤ 존 설은 사실과 가치 사이의 상관성을 부정하는 견해를 논박하였다.

39.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여러 사실을 종합하는 귀납적인 방법으로 필자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② 그동안의 이론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③ 논제에 대한 여러 이론들을 반론과 그에 대한 재반론 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논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논의의 흐름을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다.
⑤ 논제를 논하는 큰 원칙을 먼저 제시하고 이에 따라 세부 사항들을 분석하고 있다.

40. <보기>는 ㉠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ㄱ. 존스는 "나는 이렇게 스미스 너에게 5달러를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ㄴ. 존스는 스미스에게 5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ㄷ. 존스는 스미스에게 5달러를 지불할 의무를 졌다.
ㄹ. 존스는 스미스에게 5달러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ㅁ. 존스는 스미스에게 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① ㄱ은 존스가 말한 내용의 가치를 중하게 여기는 가치 명제이다.
② ㄱ~ㄷ은 사실 명제를 긍정적으로 판단하면 가치 명제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③ ㄱ~ㅁ은 평가적 진술 없이 사실 명제에서 가치 명제가 도출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④ ㄷ은 사실 명제에서 직접 추론되지 않은 독립적인 가치 명제이다.
⑤ ㄷ~ㅁ은 경험주의자의 논리에 따르면 가치 명제가 사실 명제로 전환된 것이다.

41.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실 명제로 일단 판단되면 그 명제는 가치 명제가 될 수 없다.
② 문장 자체의 차원을 넘어서기 위해 논리실증주의의 관점을 계승해야 한다.
③ 문장 사용자의 의도는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가치를 판단하는 준거가 될 수 없다.
④ 사실 명제와 가치 명제의 분류 기준을 준수하면서 그 한계를 넘어설 방안을 찾아야 한다.
⑤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명제를 파악해야 문장만으로 판단할 때의 오류를 벗어날 수 있다.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1970년대에 앉은뱅이와 꼽추는 살던 집이 도시 재개발 계획으로 헐리게 되자 사나이에게 입주권을 헐값에 팔게 된다. 속은 것을 알아차린 꼽추와 앉은뱅이는 사나이에게서 돈을 빼앗기로 한다.

앉은뱅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다.

"당신은 나에게 이십만 원을 더 줘야 돼."

"뭐라구?"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럴 수가 있어? 삼십팔만 원짜리를 십육만 원에 사다 이십이만 원씩이나 더 받고 넘긴다는 건 말이 안 돼. 나에게 이십만 원을 줘도 이만 원의 이익을 보는 것 아냐? 더구나 당신은 우리 동네 입주권을 몰아 사버렸지?"

"비켜!"

사나이가 몸을 일으켰다.

"비키지 않으면 집어던질 테야."

"마음대로 해."

아주 짧은 순간 앉은뱅이는 정신을 잃었었다. 사나이의 구둣발이 그의 가슴을 차버렸던 것이다. 앉은뱅이는 거듭 들어오는 사나이의 구둣발을 정신없이 잡고 늘어졌다. 앉은뱅이는 너무 약했다. 사나이는 앉은뱅이의 얼굴을 큰 주먹으로 몇 번 쥐어박더니 번쩍 들어 풀숲으로 내던졌다.

그는 거꾸로 처박히듯 내던져진 앉은뱅이가 길 위로 기어 나오려고 꼼지락거리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섰다. 방해물이 기어 나오기 전에 빨리 지나가야 했다.

그는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몸을 굽혔다. 순간, 검은 그림자가 그의 명치 밑을 힘껏 차 왔다. 사나이의 큰 몸이 힘없이 나가떨어졌다. 콩밭에 숨어 있던 꼽추가 차 안으로 들어가 있다 죽을힘을 다해 사나이를 차버렸던 것이다.

(중략)

'돈을 줄게!'

사나이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꼽추가 그의 입에 큰 반창고를 붙인 뒤였다. 몸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의 몸은 전깃줄로 꽁꽁 묶여 있었다.

꼽추가 차 안으로 들어가 밤하늘을 일직선으로 가르며 켜져 있던 두 줄기의 불을 꺼버렸다. 엔진도 껐다. 그는 운전석 밑에서 검정색 가방을 찾았다.

밖에서는 앉은뱅이가 사나이의 등을 받쳐 밀어 앉혔다. 꼽추가 나와 허리를 껴안아 일으켰다. 두 친구는 사나이의 몸을 떠받치듯 밀어 운전석으로 올려 앉혔다.

"나를 저자 옆에 앉혀 줘."

앉은뱅이가 말했다. 꼽추가 그를 안아 바른쪽 좌석에 앉혀 주었다. 자신은 뒤쪽으로 들어가 검정색 가방을 열었다. 사나이는 보기만 했다.

"돈과 서류야."

꼽추가 말했다.

"보여 줘."

앉은뱅이가 말했다. 사나이는 앉은뱅이와 꼽추가 자기의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건 벌써 팔아 버렸어."

앉은뱅이가 가방 안을 뒤적이면서 말했다. 사나이는 두 눈만 껌벅거렸다.

"잘 봐."

㉠"우리 이름이 이 공책에 적혀 있어. 그런데 연필로 그어 버린 거야. 이건 팔았다는 뜻이야."

앉은뱅이가 쳐다보자 사나이가 고개만 끄덕였다.

"삼십팔만 원에?"

사나이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돈을 세어 봐."

꼽추가 말했다. 앉은뱅이가 돈을 세기 시작했다. 그는 꼭 이십만 원씩 두 뭉치의 돈만 꺼냈다.

"이건 우리 돈야."

앉은뱅이가 말했다. 사나이는 다시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앉은뱅이가 뒷좌석의 친구에게 한 뭉치의 돈을 넘겨주는 것을 보았다. 앉은뱅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꼽추의 손도 마찬가지로 떨렸다. 두 친구의 가슴은 더 떨렸다.

앉은뱅이는 앞가슴을 풀어헤쳐 돈뭉치를 넣더니 단추를 잠그고 옷깃을 여몄다. 꼽추는 윗옷 바른쪽 주머니에 넣었다. 꼽추의 옷에는 안주머니가 없었다.

돈을 챙겨 넣자 내일 할 일들이 머리에 떠올랐다. 앉은뱅이의 머리에도 내일 할 일들이 떠올랐다. 아이들은 천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통을 가져와."

앉은뱅이가 말했다. 그의 손에는 마지막 전깃줄이 들려 있었다. 밖으로 나온 꼽추는 콩밭에서 플라스틱 통을 찾았다.

(중략)

차에서 폭발 소리가 들려 왔을 때는 앉은뱅이도 놀랐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뿐이었다. 불길도 자고 폭발 소리도 자버렸다. 어둠과 침묵이 두 사람을 싸고 있었다. 꼽추가 앞서 걸었다. 앉은뱅이가 그 뒤를 따랐다.

㉡"살 게 많아."

그가 말했다.

"모터가 달린 자전거와 리어카를 사야 돼. 그 다음에 강냉이 기계를 사야지. 자네는 운전만 하면 돼. 내가 기어 다니는 꼴을 보지 않게 될 거야."

앉은뱅이는 친구의 반응을 기다렸다. 꼽추는 말이 없었다.

"왜 그래?"
앉은뱅이는 급히 따라가 꼽추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이봐, 왜 그래?"
"아무것도 아냐."
꼽추가 말했다.
㉢"겁이 나서 그래?"
앉은뱅이가 물었다.
"아무렇지도 않아."
꼽추가 말했다.
"묘해. 이런 기분은 처음야."
"그럼 잘됐어."
㉣"잘된 게 아냐."
앉은뱅이는 이렇게 차분한 친구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다.
"나는 자네와 가지 않겠어."
"뭐!"
"자네와 가지 않겠다구."
꼽추는 이렇게 말하고 한마디 덧붙였다.

(중략)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자네의 마음야."
"그러니까, 알겠네."
앉은뱅이가 말했다.
㉤"가. 막지 않겠어.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 조세희, 「뫼비우스의 띠」

42.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작중 인물의 시각으로 그가 겪은 사건을 진술하고 있다.
② 인물의 심리 변화를 세밀히 서술하여 갈등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③ 비유와 상징을 통해 사건의 기본적인 정황을 압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④ 인물의 행위와 대화를 짧은 문장으로 서술하여 사건을 보여 주고 있다.
⑤ 편집자적 논평을 이용하여 독자들에게 인물의 선악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43. ㉠~㉤ 중 말하는 인물이 다른 것은? [3점]

① ㉠ ② ㉡ ③ ㉢ ④ ㉣ ⑤ ㉤

44.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앉은뱅이는 꼽추와의 동료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앉은뱅이는 미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놓고 있다.
③ 사나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다.
④ 꼽추는 앉은뱅이가 생각하지 않은 면에 대해 고려한다.
⑤ 꼽추는 앉은뱅이보다 주도적으로 중심 사건을 이끌고 있다.

45. <보기>를 근거로,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조세희의 「뫼비우스의 띠」 첫 부분에는 굴뚝에 들어간 두 아이에 대해 묻는 교사가 나온다. 교사는 두 아이 중 얼굴이 깨끗한 아이와 더러운 아이가 있다면 누가 얼굴을 씻겠는지 묻지만, 마지막에는 사실 그 질문이 잘못되었다면서 "한 아이의 얼굴이 깨끗한데 다른 한 아이의 얼굴은 더럽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 곧 어떤 문제 상황에서 처음에 한쪽이 잘못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아예 잘못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 소설의 제목을 안팎의 구분이 없는 '뫼비우스의 띠'로 삼은 이유이기도 하다.

① 앉은뱅이가 자신 몰래 사나이의 돈을 더 챙긴 것을 보고 그에 대한 신뢰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② 앉은뱅이가 자전거와 리어카를 사면서 자신에게는 어떤 고려도 하지 않는 이기적인 인물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③ 앉은뱅이가 돈을 주겠다는 사나이의 애원을 무시하고 강탈하는 무자비한 마음씨를 가졌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④ 앉은뱅이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돈을 되찾기 위한 일이었다고 여기면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⑤ 앉은뱅이가 내일 할 일에만 관심이 있고 사나이에게 다친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지나치게 냉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확인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